

대순사상과 아동교육*

김 순 자

대진대학교

〈요 약〉

종교가 인성을 통합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고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함으로 성숙한 종교성을 갖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통제성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순진리회는 유, 불, 도의 고전, 동양종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종파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교육하기보다 성인과 함께 공부하였으며, 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자체에서 통합적인 인격교육을 하였다.

마음에 신을 모시는 인존의 인간상을 이상상으로 생각하고 태교를 하며 부모됨의 준비로 심신을 정성으로 가다듬고, 출산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바탕으로 부모가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주었다. 또한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행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게 하여 스스로 효성스런 행동을 하게 했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의 역할을 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인간답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심과 시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인성을 갖게 하여 양보의 미덕을 갖추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동심, 단결력, 상부상조, 타인의 배려심, 책임감, 준법성 등을 함양하는 인성중심의 아동교육을 실천 했다. 따라서 종교는 아동의 정의적 행동특성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심 주제어: 종교, 대순사상, 아동교육, 정의적 행동, 인성교육, 민족종교

* 2006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태도, 종교 및 정신적 테두리 속에서 성장하게 되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 언어 모형, 지적수준, 기대체제, 문화체제 등은 자녀의 지적행동 특성과 정의적 행동특성을 결정하는데 주요 변인이며, 감성, 가치관, 자아개념, 성취동기, 신념체제 등의 정의적 행동 특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 내면화되어진다. 이러한 태도의 대부분은 아동기에 결정되므로 아동기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한국교총과 함께 청소년 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보고서(2009)에 따르면 초등학교 가운데 15.7%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비율이 초·중·고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과 청예단은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상담 활동, 전문성(교사교육, 교사상담) 교류, 상호 기관 홍보 협력, 교사대상 학교폭력사인처리 상담서비스 협력, 폭력 예방 및 조치를 위한 교사지침서제작·배포, 학교폭력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분야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9년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학교현장에서 학교 폭력 예방 특별수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가정이나 학교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학력도 높아지고 교육이론들도 늘어나며, 학교환경구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교공부 외에 사교육기관에 밀려 그들이 마음껏 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사는 실정임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이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하여 점점 높아가고 있는 간판이 놀이치료실, 인지치료실 언어치료실 미술치료실, 행동치료실, 학습 클리닉 등이다. 이는 치료받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학교에서 성적은 좋으면서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빈도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종교교육학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종교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종교와 아동교육’을 그 화두로 삼은 것은 실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 종교의 의식에 따라 제반가족행사를 종교적인 절차에 따라 치르며, 온 가족이 모여 가족 내의 일상생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과 용기를 갖게 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신앙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것을 극복하게 해주며 인간이 겪게 되는 경제적·사회적·정신적·신체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의 기능을 한다(Charles Y. Glock, 1965).

종교인들은 가정교육을 비롯하여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 즉,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 임신과 낙태에 관한 문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문제, 부부간의 성적·정서적인 갈등문제, 가족폭력문제, 청년기 우울감과 위기감 문제, 노인 소외 문제 등을 종교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교육과 종교에 관련된 연구로는 기독교 가정교육(김진곤, 1980; 고문석, 1996); 심창걸, 1987)과 가정윤리(이정덕, 1992; 송순, 1994) 그리고 종교갈등(전영복, 1988; 이정덕·전미경, 1995), 종교인의 가정생활과 가치지향(최은경, 1998)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가족 가치관은 대학생의 경우 결혼관, 부부관, 부모-자녀관에서 불교를 믿고있는 학생이 보다 전통적이었으며(강숙경·고정자, 1996; 김일명·김명자, 1989), 효행은 기독교나 불교인 경우가 타종교나 무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고경미·서병숙, 1988),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부모 부양의식이 높았다(최정혜, 1997). 이러한 현상은 종교를 가진 학생의 행동기준이 규범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혼례의식, 낙태의식, 이혼에 관한 태도에서 혼례의식은 불교가 타종교보다 뚜렷이 전통적이었으며(이정우·김명나, 1990), 혼전 성 행동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신앙심의 영향을 받지만 여대생의 경우 신앙심과 상관없이 없었으며(윤경자, 1995), 낙태에 대한 태도는 카톨릭은 무종교에 비해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았다(오선주, 1996). 이혼에 대한 태도는 불교나 무교에 비해 천주교, 기독교를 가진 여대생이 보다 전통적이었으며(정현아·서병숙, 1985), 여성노인의 경우 재혼의 불합리성이 종교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으로써(성병숙·김혜경, 1997), 종교인들은 더 규범적이고 고정 관념적인 태도를 더 많이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종교유무에 따른 어머니 자신의 성 역할 태도와 딸의 성 역할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정우·정종희, 1984).

인성측면에서 안정성은 비기독교 아동에 비해 기독교 가정 아동의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정수자, 1979), 내외 통제성은 부모의 종교가 있는 아동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이희자·권영옥, 1992), 노인의 경우 역시 종교는 내외 통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일수록 내외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났다(현은민, 1996).

이는 종교가 인성을 통합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고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함으로 성숙한 종교성을 갖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통제성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변경애·김순옥, 1999)는 것을 대변한다.

기독교를 믿는 청소년이 불교나 기타 종교집단보다 더 지배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협동적이고 온순한데 반해 불교를 믿는 청소년은 보다 더 반항이며 공격적이고 경쟁적 행동특성을 보였다(정수자, 1981). 즉, 인성측면에서 내외통제성은 종교가 있을 경우 높았으

며 안정성 측면에서 기독교 가정 아동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 즉, 건강성, 안정성, 응집력, 적응력 등을 살펴보면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미석, 1996; 고정자·김갑숙, 1997),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의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혼 안정성은 부부의 종교가 일치할 경우가 불일치 한 경우에 비해 높았다(김미숙·김명자, 1990) 이는 부부가 일치된 종교를 가짐으로써 일단 종교생활의 공동참여로 인해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부부들보다 많고 이를 통해서 부부간의 가치관 합의도 커질 수 있으므로 결혼생활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은 가족 내 공통된 종교가 있는 경우에 더욱 강화되었다(안선영, 1994; 최규련, 1994). 그리고 종교가 없는 집단은 종교가 있는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순종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은민, 1994). 아동기의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도는 아버지의 종교가 기독교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역시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왕석순, 1991).

가족기능은 종교가 있을 경우 수행도가 높았으며 자녀양육은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일 때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정교육 수행도와 가정교육 수용도 모두 높았다. 종교활동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며(강정희, 1995), 종교 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여주며 생의 기쁨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현은민, 1996).

즉, 종교 활동은 여성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되어주며, 노인들에게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여주고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가 활동은 노인의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은 종교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능적이고 유아적 종교심이 성숙된 종교심으로 발달하며, 성숙된 종교심은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또한 신에게 감사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타인을 이해할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한다. 즉 종교의 유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순사상 속의 아동교육관과 방법을 주로 전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래 아동교육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족종교는 우리 민족의 정체감과 문화적 주체의식을 찾고 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 대순진리회는 유, 불, 도의 고전, 동양종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종파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교육하기보다 성인과 함께 공부하였으며, 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자체에서 통합적인 인격교육을 하였다.

Ⅱ. 대순사상의 인생관과 교육내용

대순사상은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정산이 15세에 천명을 받들고 23세에 증산의 계시로 득도하여 태극도를 세웠는데 정산이 우당을 도전으로 임명하고 그 도를 전하여 우당이 종통을 이어받았다. 우당이 태극도에서 다시 대순진리회를 세우고 증산·정산의 도맥을 이었다.

증산사상은 태극사상으로 집약될 수 있고 태극사상은 대순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증산의 사상은 천도, 신도, 선도, 미륵사상 등으로 상징되는데 정산은 증산사상을 우주의 궁극적 실체인 태극에 기초하였다. 태극은 무극에서 시작하여 태극이 되고 태극은 음양의 조화로 삼계를 대순하므로 우당이 태극의 동적 측면을 포착하여 대순이라 하였어도 대순과 태극은 다를 바 없다(이항령, 1996)고 하였다.

대순사상의 주요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우주관으로 천하대순사상, 천지공사사상, 후천계벽 사상이며, 인생관에는 인존평등 사상, 해원상생 사상, 보은협동 사상이고 사회관으로는 원시반본 사상과 만국활계사상, 조화선경 사상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대순주요사상 중 인생관을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논하고자 한다.

1. 인존평등사상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동격으로 보는 신인동등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동격을 넘어서서 인간을 신의 상위에 두는 인존사상을 전개했다.

인간은 신의 명령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증산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신을 마음대로 조정하였다고 한다. 신의 위치를 높히면 인간이 마음이 높아지고 인간의 마음을 높이면 신의 위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대순사상에서는 인존을 강조하며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신이 준다고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일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전경교법』 1장 21절).

이 말씀은 종교행위로서 신명에 대한 기도보다 마음에 대한 정화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존사상은 한편 인간평등사상을 이끌어 내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며 계급적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여성들에게 정음, 정양의 올바른 천지도수를 밝혀서 여성의 평등을 실현시켰다.

「한국인은 자식 특히 사내자식 광이다. 사내아이는 한국인에 있어서 계집아이보다 10배나 더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계집아이도 귀중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버리는 예는 거의 볼 수 없었다」(손인수, 1978: 72쪽).

그러나 무조건 딸이라고 천시되고 함부로 키우고 버려두지 않았으며 사대부 집안이나 중상류 가정에서는 여아에게 상당한 수준의 문자 교육을 시켰다. 여아는 남아보다 차별대우는 받았으나 무조건 경시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여아에 대한 태도는 인간적이었으며 애정에 기반을 둔 존중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경에서는

「이제는 해원이 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하도록 풀어 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전경』, 공사 1장 32절).

여기에서는 음과 양이 덕으로써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높이는데 있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상부상조하여 화합하도록 했다. 여성들은 단순히 원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의 덕성을 계발하고 경우 바른 성·경·신의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인간의 자유와 능력발휘를 제안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빈부, 남녀차별의 철폐를 주장하여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이루도록 하였다.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신인조화는 교육학적으로 성취가능하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인존의 상태로 지향성을 포함한 인간사상이며 대순사상은 인존의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인존의 인간학”이라 규정했다(윤재근, 2001).

신이 인간에게 내재적 존재로 작용 할 때 이를 인성의 지극한 가치로서의 도(道)라 한다. 도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인존의 형성은 인간 자신의 주체적 노력 없이는 이를 수 없으며, 이러한 수도는 정심(正心)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인존의 실현은 자아실현이며 허황됨이 없고 진지하여 타인에 모범이 되는 것이다.

2. 해원상생 사상

인존사상이 인간의 본질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해원상생 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힌 것이다. 우주와 인간은 본래 평화적 상생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것인데 천하가 불안한 것은 신명계와 인간계가 원한이 차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원한이 남아 있는 한 천하가 편안할 수 없으므로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원한을 푸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한을 푸는 것이 해원이고 상극을 푸는 것이 상생이다.

기독교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의 정신이라면 불교의 자비는 동정의 정신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증산의 해원 사상은 동체의식에 근원 하는 정화의 정신이다. 즉, 천지만물이 일체인데 그 일체 중에서 막힌 곳이 있으면 전체가 막히므로 천하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막힌 곳을 뚫어서 전체를 정화시키면 천하가 통정되어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다. 동체의식에서는 신체일부의 부정한 곳이 정화됨으로써 전체의 생명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다. 그 부정이라는 것이 바로 원한이다. 그와 같은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동정할 수도 없다. 원한이 깨끗이 해소되었을 때 미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져서 대인, 대의의 무병한 세계가 있을 수 있고 평화와 상생이 있게 된다.

여기에서 해원이란 그 원인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원한을 근본적으로 깨끗이 해소시키는 일이며 한편, 신명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원한의 씨까지도 뽑아버리는데 있다. 따라서 원한 자체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퇴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시 불행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증산의 해원 공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효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원을 푼다는 뜻은 원한 문제뿐 아니라 원천적인 인간본성의 한 까지 푼다는 깊은 뜻이 있다. 전경에는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어라. 萬一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느니라」(『전경교범』 2장 6절).

「사람들끼리 싸우면 天上에선 先雲神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느니 天上싸움이 끝난 뒤에 人間 싸움이 歸正 되느니라」(『전경교범』 1장 54절).

윤리적 부재상황을 반전시켜 윤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상생은 후천선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원상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해원상생의 실천 방안에는 성·경·신을 실천하는 것이며 성은 사람의 정수와 기분과 심신의 합일을 말하며 거짓이 없고 꾸임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경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하는 것이며 모든 일이 내심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다. 신은 가식이 없는 신앙의 본의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며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자아대성을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방안은 다양하며 전경에서 해원상생의 실천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자녀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은혜는 자식이 평생 보답하려 하여도 할 수 없는 지대한 것으로 인식되어있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에 행해야 할 실천적인 면에 대하여 대순사상에서는

「한 불경한 태도를 보시고 그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니라. 그 아우가 부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불손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문 앞에서 갑자기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연달아 소리만 지르니 가족들이 놀라 어찌 할 줄 모르는지라. 상제께서 조금 지나서 그의 아우를 돌아보시고 「어찌 그렇게 곤욕을 보느냐」고 물으시니 그제서야 그의 아우가 몸을 굽히고 정신을 차리는지라. 그 까닭을 가족들이 물으니 그의 아우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데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더니 숨이 막혀 마음대로 통하지 못하였다 하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그 때에 너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하시며 크게 꾸짖어 가라사대 「네가 부친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어떠하였겠느냐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일러주셨도다」(교법 1장 40절).

이는 부모에게 불경한 언행을 했을 때의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함으로서 그를 뉘우치게 하신 것이다. 더구나 부모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중을 한 것인데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에게 반발심을 품은 것을 상제의 권능으로 그를 깨우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이 아찔하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이것을 직접 내 마음으로써 느끼면 그런 언행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행하는 예로, 상제의 부친이 빗 독촉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상제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고 채권자에게 가서서 그를 감동시켜서 빚을 탕감하게 된 일화가 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불경한 언행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부모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자식의 도리일 것이다. 또한 유가에서 대효(大孝)로 알려진 순임금에 대하여도 상제께서는 “세상에서 우순(虞舜)을 대효라 일렀으되 그 부친 고수(瞽叟)의 이름을 벗기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교법 1장 44절)라고 하셔서 요임금이 자식된 도리로 효도를 다하여 부모의 악행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훌륭하지만 부모의 악명을 후대에 전하게 된 것은 불찰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에 조금이라도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有父無子其父何立’(공사 3장 40절) 이라 하신 것처럼 부모도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 할 때 부모로써의 입지가 성립되어 올바른 부자 윤리가 바로 서는 것이다. 또한 대순 사상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통하여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효심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제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잠재적으로 조상에 대한 숭배와 효에 대한 관념이 내면화되어져 그들의 행동특성에도 나타나고 있음은 긍정적 특징이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의 정신은 옛날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전통이며 효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겠다.

2) 장유(長幼) 관계

장유관계의 윤리에 대해서 『典經』의 내용을 보면,

「상제께서 ... 황 사성(黃士成)의 집에 이르러 머무실 때 어떤 사람이 얼굴에 노기를 띄고 문을 쾅 닫는 바람에 벽이 무너졌도다. 이것을 보시고 곧 상제께서 같은 동리의 정 춘심(鄭 春心)의 집에 옮기시니라. 황 사성의 부친 숙경이 황 참봉(黃 參奉)으로부터 돈을 얻어 썼으나 그는 죽고 그 아들이 사람을 시켜 숙경에게 갚을 것을 독촉하러 온 것인데 그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경무청에 고발하여 옥에서 신세를 썩게 하리라고 위협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상제께 들린 것이외다.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벽을 무너뜨렸으니 그 일은 풀리리라. 샅갓 한 닢과 필묵한 필을 사 오라」고 숙경에게 이르시고 「이것은 양자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이니라」고 알리고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르셨도다. 연말에 순검이 채무관계로 숙경을 잡으므로 숙경이 순검에게 채권자의 집에 들러 주시기를 간청하니 순검이 그 채권자의 집에 데리고 가니 참봉의 아들이 숙경이 잡혀온 것을 보고 힐난하거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저 어른은 너의 부친의 친구이신데 내가 차마 그 분을 옥에 가두게 하다니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면서 아들로 부터 증서를 빼앗아 불살랐도다」 (행록 3장 23절).

위의 내용은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오직 손익만을 따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잊고, 고발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을 상제께서 금전관계의 원한을 풀어 이 일이 채권자의 어머니를 통하여 도리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선친(先親)의 친구를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하여 옥에 가두어 해를 입게 하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행할 바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수칙(守則)¹⁾에서는 아랫사람은 존장(尊長)을 경례(敬禮)로써 섬겨야 하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애휼(愛恤)·지도(指導)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 윗사람의 입장에서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숙경도 윗사람으로서 채무의 약속을 기일 내에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유관계 에서는 이익관계로 인하여 손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며 아랫사람을 사랑하여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외에도 대순사상에서는 특기할 만한 장유관계의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장유의 구분 기준이 나이나 항렬보다는 신적(神的)인 등위가 그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부에 나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들이 계시는도다.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항렬을 좇아 말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윤리상 전통이라.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만 모든 신명은 그들의 불경한 언

1)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제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휼 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大巡眞理會要覽』, 21.).

사를 옳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죄로 인정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친족과의 왕래를 적게 하느니라 하셨도다」(행록 1장 38절).

위의 내용 살펴 볼 때, 상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서 가장 높은 신적(神的)인 위격(位格)을 가진 절대자이므로²⁾ 인계(人界)에서 단지 윤리적 전통에 따라 상제를 하대하는 것이 신계(神界)에서는 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로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연령이나 항렬보다는 종단 내의 직위에 따라 존장과 수하를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

따라서 장유관계의 윤리에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여 예의로써 대우하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지도하여야 하고, 사회집단의 지위에 따라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가정에서도 출생순위 및 항렬에 따라 그들의 역할과 호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의 직위를 더 중시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3) 붕우(朋友)관계

붕우관계의 윤리에 있어서 수칙에서는 신의(信義)로써 서로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 시속에 있는 망량의 사قم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귀여운 물건을 늘 구하여 주는 연고라. 내가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망량을 사귀라고 이르셨도다」(교운 1장 7절).

라고 하여 친구를 사قم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사귀라는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면 서로를 좋아하여, 좋은 물건을 보면 서로 친구가 생각나므로 그 친구에게 주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친구가 주는 물건의 이익을 탐하여 친구를 사귀는 것은 진실 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친구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서로를 속이게 되므로 올바른 행위라 할 수 없다.

-
- 2) 구천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구천이라 함은 전경에 「……모든 신성·불·보살들 이 회집하여 구천에 하소연 하므로…(교운 一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우주를 총괄하시는가장 높은 위에 계신 천존께 하소연 하였다는 말이니 그 구천은 바로 상제께서 삼계를 통찰하 사 건곤을 조리하고 운화를 조련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임을 뜻함이며… (大巡眞理會要覽, .6-7), 가장 높은 위에 계신 천존께 하소연 하였다는 말이니 그 구천은 바로 상제께서 삼계를 통찰하사 건곤을 조리하고 운화를 조련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임을 뜻함이며… (大巡眞理會要覽, .6-7).
- 3) 대순진리회의 임원 직위는 선정부와 교정부로 구분되며 선정부는 선감, 차선감, 선사, 선무, 교정부는 교감, 교령, 교정, 교무로 되어 있다.(도헌 제 56조 참조) 그리고 “사람마다 그 닻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교법 2장 17절)의 내용을 볼 때 위의 직위는 신명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것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교법 3장 34절).

위의 글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해치는 일은 하극상의 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선천에는 상극(相克)의 법리로 인하여 이러한 패륜이 자행되었으나 후천의 상생(相生)의 법리 속에서는 강륜이 바로 서기 때문에 감히 하극상을 저지를 수 없으며, 만일 하극상을 범한다면 배사율이 적용되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스승을 대 하여야 하며 절대 스승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스승은 또한 제자가 없으면 설자리가 없으므로(有師無學其師何立)(공사 3장 40절), 제자를 올바르게 가르쳐 사회의栋梁(棟梁)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 인간관계에서 윤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어떠한 인간관계이든 대전제(大前提)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이며, 이에 입각해서 모든 윤리를 실천해나갈 때 인간관계의 윤리가 재건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인 도덕규칙에 의하여 행동하려 한다 하여도 그 관계 사이에 원(冤)이 있으면 윤리가 올바르게 행해질 수 없으므로, 해원상생의 원리 속에서 서로 간에 원을 풀고 상생하려는 마음으로 실천하여야 윤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효도하고, 충성하고,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의를 지키며, 은혜에 보답하는 등의 모든 인간관계의 도덕법칙들은 모두 남을 위하는 상생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윤리질서가 옹골게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가 바탕이 되는 전통교육의 사상은 이미 대순사상에서 충분히 담고 있으며 상제께서는 가정의 평화를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해원공사(解冤公事)는 인간계와 신명계에 쌓인 겹액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한 공사이다. 이로써 삼계가 상통하고 상생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신명이 모두 살 수 있는 내·외적인 환경조성이 천지공사로서 만들어졌다. 이에 상제께서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해원상생의 사상을 실천하는 문제가 남으며 특히, 가정교육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해원상생은 실천윤리의 대강령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원상생이 되어야 혼란한 현실을 극복하고, 대순진리의 목적인 지상천국, 도통진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해원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지상천국은 가능한 것이다. 즉 인간 상호간, 국가간, 민족간, 계급 계층간, 인종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명들이 모두 원한을 풀고 상생해야 달성된다는 것이다.

『典經』에는 해원상생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뿔히듯 하리니 …」 (교법 3장 4절).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교법 1장 9절).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교법 1장 11절).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 (교법 1장 57절).

위의 예문에서 해원상생의 구체적인 실천은 척을 짓지 않아야 하고, 남을 우대하며, 남을 칭찬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타인을 우대하고 귀하게 여겨 존중함으로써 해원을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하여 좋게 말하여 언덕(言德)을 잘 가짐으로써 그 사람이 잘됨과 동시에 그 여음(餘蔭)으로 인하여 덕이 되어 복을 이루게 된다. 또한 네 번째 예문에서는 해원상생을 실천하여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怨讐)마저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⁴⁾

이렇게 해원상생의 실천은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함으로써 나도 복덕(福德)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정신과 물질이 조화되고 인간의 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 화해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원상생이 실현되어 지상선경을 이룬 사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典經』에 설명되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께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예시 80).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

4) 이와 관련해 『典經』의 다른 구절에서는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교법 3장 15절)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다.

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 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

이는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써 다시 태어나도록 교육하고 타인과 함께 친 사회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 보은협동사상

인간이 세상에 태어남도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 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로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전경교법』 2장 36절).

라고 보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태교의 중요성도 함께 예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교육에서의 태교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전통가정교육의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예절 등 협동정신의 교육내용이 제시되었다.

해원이 되어 천하가 모두 상생하게 되면 천하 만물이 모두 서로 의지하여 살게 되므로 천지에게 보은하고 신명에게 보은하고 인간에게 보은을 하게 되면 모두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천지인이 협동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선천상극의 시대에는 보은보다 복수가 많으며 조화와 협동보다 갈등과 투쟁이 많았다. 이 갈등과 투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대순사상은 인간계나 신명계가 다 같이 화평하고 화합하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심성이 정화, 개조되고 그 개조된 심성으로 협동하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언행을 바로 하여 타인에게 착을 짓지 않도록 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이루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협동, 관용, 화합, 단결 등의 민주적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정신을 담고 있다.

Ⅲ. 대순사상과 아동교육

1. 대순사상에서의 아동기

가장 오래된 아동의 시각은 아담의 원죄설에서 비롯된 사악한 아동(evil child)에서 출발된다. 아동은 쉽게 유혹에 빠지므로 부모의 엄격한 양육이 요구된다는 이 가치관은 중세까지는 지배적이었으며 현재에도 남아 있다. 사악한 아동과 정반대되는 순진무구한 아동(innocent child)관은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8세기와 19세기의 순진무구한 아동관은 오늘날의 아동중심 교육의 기반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Freud의 무의식의 아동(naturally developing child)관이 양대 큰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아들을 가진 귀족층과 중산층으로부터 아동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들을 성인의 직업 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서 학교에 보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동기는 창조된 것이고(Jenks, 1996). 계층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 시기에 비로소 아동의 본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맞는 의복도 입히고 양육의 기쁨도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아동기는 서구에 비해 일찍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언제까지를 아동기로 보느냐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아동의 아동다움을 인정해 주고 성인의 성역할 교육을 받아야 했던 7세 이전까지를 아동기로 보느냐 아니면 성년식을 치르고 성인으로서 권리와 책임도 부가하던 시기까지로 보느냐는 것이다.

아동을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아동기(childhood)의 개념도 달랐다.

전통 사회의 아동 교육서인 『소학』에 의하면, 7세가 되면 남녀 아동은 사랑방과 안방이라는 서로 다른 곳에서 양육되고 성별에 따라 남녀의 성인 역할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성인 역할을 가르치기 이전을 아동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7세까지가 아동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반면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성년식을 여자는 15세, 남자는 20세에 치러졌으므로 그 이전에는 미성년으로 보아 아동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식인 관례를 치른 후에야 성인으로 행사하였고 성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동을 연령으로 범주를 구분할 때 국제법에서는 18세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용어도 다르고 권리와 의무 규정도 다르다. <표 1>은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아동과 아동의 유사개념으로 쓰인 호칭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아동교육이라 할 때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여 단순화 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

〈표 1〉 국내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과 아동유사개념

법 률	호 칭	연 령 구 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의 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도로교통법	유아	6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자
민법	혼인적령	남자 - 만 18세, 여자 - 만 16세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자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 후 6세 미만자
생활보호법	아동	18세 미만자

출처: 안동현(1997), 아동의 권리 - 필요성, 역사성 및 과제, 『아동권리연구』 1(1), 9~21.

그러나 대순사상에서의 아동관은 성역할을 배우기 이전까지를 아동으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심리학이나 교육학적 이론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존재를 발달적 관점에서 구분한 흔적도 찾기 힘들었다. 이들은 남녀의 성역할을 중시했으며 그 역할 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7세까지 혹은 여자는 15세, 남자는 20세까지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2. 대순사상에서의 아동교육방법

대순사상을 실현 하고 있는 대순진리회에서의 교육방법은 교육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장면에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지적인 가르침 뒤에는 적절한 시를 지어 외우게 하여 지식의 의미화를 촉진시켰다.⁵⁾ 또한 제자와 스승사이에 문답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갖도록 유도하였다.⁶⁾ 또한 지식의 전문성을 강조했고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중시하는 공부(工夫) 즉 기도공부, 시학공부수강과 연수 등을 다양한 방법과 순서를 가지고 하고 있으나 아동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성인 도인을 위한 방법이기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전경』의 교법 2장 34절에 의하면

상제께서 경석에게 가르치시기를 「모든 일이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사람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

5) 『전경』, 행록 44.

6) 『전경』, 교운 1-16.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을 후천적인 환경에 두어 아동을 잘 기르는 것은 가정교육과 주변 환경 변인에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에 기르기와 같다고 한점은 누에를 기르는데 있어서 적절한 외부 환경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며, 첫잠부터부터 필수적인 성장을 해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 주어야 하며 애벌레 상태의 조건은 후기의 누에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첫잠에 잘못되면 다음의 단계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정시기에 잘못되면 그 후에 충분한 보상적 자극이나 환경이 제공된다 해도 불가역적이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곧 현대유아교육의 중요성에서 말하는 적정성의 원리, 기초성의 원리, 누적성의 원리, 불가역성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가운데 아동교육에 적용 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화목함을 근본으로 자녀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교법 1장 54절)

둘째, 부모에게 효행을 하도록 하되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을 그 방법으로 택하였다.(교법 1장 40절)

셋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도록 하였다. 윗사람은 수하를 사랑으로 지도하고, 손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였다.(교법 2장. 공사 3장 40절)

넷째, 타인에 대하여 언행을 바르게 하고 타인이 잘되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경쟁심, 시기심을 억제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행록 3장 23절)

다섯째,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및 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생활화 시켰으며, 협동심, 단결력, 상부상조, 책임감 등 민주적 태도를 육성 시켰다.(교법 1장 54절)

이와 같은 아동교육의 방법은 오늘날 자기 자녀가 일등이어야 하고 최고여야 하는 압박감, 우울증에서 오는 아동기 자살의 충동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 교육과정만큼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아동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잠재적 교육과정의 결과는 인간의 내부에 내재화되어 쉽게 잊어버리거나 바뀌지 않으며, 개인의 행동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된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아동은 성격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바람직한 정의적 행동특성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체적 인존의 존재, 민주적 시민의 존재, 자아실현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대순사상과 미래아동교육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사람

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인다고 보았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태어나게 하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로 많다고 하였다. 이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을 존귀한 신이 점지해 준 존귀한 인존의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인간은 태아기교육부터 신중히 하여 마치 누에를 기르듯 정과 성을 다하여 기르되 너무 인지쪽으로만 치우친 교육이아니라 지, 정, 의의 균형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미래 아동교육의 방향은 대순사상의 실현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존평등사상의 실현으로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유아가 타고난 재질, 소질, 개성, 적성 등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한 창의성 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우리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빼어난 두뇌와 우수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재능과 두뇌는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아동기에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해원상생사상으로 효 교육의 실천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정신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펴보면 효를 능가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감대를 찾기란 쉽지 않다. 효(孝)교육이란 형제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에 대한 존경, 조상 숭배, 이웃 사랑, 고장 사랑, 나라 사랑 등의 마음씨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효 교육이란 부모·조상에 대한 맹종, 순종,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감적 정서인 ‘끈끈한 정’을 실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근본적으로 인간주의, 인본주의 사상의 한국화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 보은협동사상의 실현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역 간, 국가 간, 그리고 인간간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아동기에 길러야 할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에는 소통의 기술, 타인의 배려, 협동, 준법정신, 봉사, 희생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미래의 아동교육은 교육을 받을수록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서 타인의 처지와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형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기술에 대한 친숙성을 들 수 있다.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정보기술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여섯째, 인존평등과보은 협동의 맥락을 통해 각종 편견·선입관을 지양하는 다문화적 가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대표적 아동교육 프로그램에는 화해교육프로그램과 편견 극복 교육(anti-bias education) 프로그램이 있다. 화해교육 프로그램은 아동기에 민주시민 형성의 기초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민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기능인 상호

의견존중, 토론하는 방법,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이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편견 극복교육 프로그램은 성 차이 이해, 타 종족 및 민족의 가치 존중, 계층 간·지역 간의 갈등 이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대순진리회관에서도 교회처럼 어린이집을 도입하기 시작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아동기의 보육 및 교육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지적 특성 및 정서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종교는 아동교육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환경변인이다.

IV. 결 론

종교가 인성을 통합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고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성숙한 종교성을 갖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생각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통제성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순진리회는 유, 불, 도의 고전, 동양종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종파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교육하기보다 성인과 함께 공부하였으며, 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자체에서 통합적인 인격교육을 하였다.

이들은 마음에 신을 모시는 인존의 인간상을 이상상으로 생각하고 태교를 하며 부모됨의 준비로 심신을 정성으로 가다듬고 출산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바탕으로 부모가 가정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 주었다. 또한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행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게 하여 스스로 효성스런 행동을 하게 했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의 역할을 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인간답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심과 시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인성을 갖게 하여 양보의 미덕을 갖추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동심, 단결력, 상부상조, 타인의 배려심, 책임감, 준법성 등을 함양하는 인성중심 아동교육을 실천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특히 대순사상의 주요사상을 전경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고찰하였다.

그 중 우주관은 천하대순사상, 천지공사사상, 후천계벽 사상이며, 인생관은 인존평등 사상, 해원상생 사상, 보은협동 사상이고 사회관으로는 원시반본 사상과 만국활계사상, 조화선경 사상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인생관을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논하였다.

인생관은 첫째, 인존사상으로 인간평등사상을 이끌어 내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며 계급적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정

음, 정양의 올바른 천지도수를 밝혀서 여성의 평등까지 실현하였다. 둘째, 해원상생 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힌 것이다. 우주와 인간은 본래 평화적 상생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것인데 천하가 불안한 것은 신명계와 인간계가 원한이 차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원한이 남아 있는 한 천하가 편안할 수 없으므로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원한을 푸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한을 푸는 것이 해원이고 상극을 푸는 것이 상생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관계를 잘하도록 하고, 장유유서를 지키는 교훈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 아동교육에 매우 중요한 덕목을 제시 해 주었다. 셋째, 보은 협동사상은 해원이 되어 천하가 모두 상생하게 되면 천하 만물이 모두 서로 의지하여 살게 되므로 천지에게 보은하고 신명에게 보은하고 인간에게 보은을 하게 되면 모두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천지인이 협동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태어남 자체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연의 감사함도 느껴 살생을 금기시하고, 원한을 갖지 않도록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첫째, 가정의 화목함을 근본으로 자녀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교법 1장 5절)

둘째, 부모에게 효행을 하도록 하되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을 그 방법으로 택하였다.(교법 1장 40절)

셋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도록 하였다. 윗사람은 수하를 사랑으로 지도하고, 손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였다.(교법 2장, 공사 3장 40절)

넷째, 타인에 대하여 언행을 바르게 하고 타인이 잘되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경쟁심, 시기심을 억제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행록 3장 23절)

다섯째,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및 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생활화 시켰으며, 협동심, 단결력, 상부상조, 책임감 등 민주적 태도를 육성 시켰다.(교법 1장 54절)

위의 아동교육방법은 현재의 아동교육에도 바람직한 방법임이 확인 되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의 미래아동교육의 방향은

첫째, 인존평등사상의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유아가 타고난 재질, 소질, 개성, 적성 등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야 하며, 창의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둘째, 해원상생사상으로 효 교육의 실천해야 한다. 효(孝)교육이란 형제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에 대한 존경, 조상 숭배, 이웃 사랑, 고장 사랑, 나라 사랑 등의 마음씨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효 교육이란 부모·조상에 대한 맹종, 순종,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감적 정서인 ‘끈끈한 정’을 실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근본적으로 인간주의, 인본주의 사상의 한국화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 보은협동사상의 실현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역 간, 국가 간, 그리고 인간간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아동기에 길러야 할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에는 소통의 기술, 타인의 배려, 협동, 준법정신, 봉사, 희생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미래의 아동교육은 교육을 받을수록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서 타인의 처지와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형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기술에 대한 친숙성을 들 수 있다.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정보기술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여섯째, 인존평등과 보은 협동의 맥락을 통해 각종 편견·선입관을 지양하는 다문화적 가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숙경·고정자, 「가정의 심리적 과점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6.
- 고문석,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고정자, 「청소년의 흡연지식과 흡연태도가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2.
- 고정자·김갑숙,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서울: 대한가정학회, 1997.
- 김명자·박성연,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89.
- 김미숙·김명자,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0.
- 김미혜·유영주, 「노후성격적응성향과 노인이 지각하는 기혼자녀와의 갈등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 김순자, 「대순진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 교육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 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pp. 177-193.
- 김영기,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영철, 『진통 가정교육 연구』, 서울: 문음사, 1998.
- 김일명·김명자,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89.
- 김지하, 『동학이야기』, 서울: 솔 출판사, 1994.
- 김진곤, 「기독교 교육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서병숙·김혜경, 「노인의 재혼연구 기혼자녀의 노인재혼에 관한 시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 송 순, 「유교, 원불교에 나타난 가족윤리와 아동교육」,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심창걸,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안선영,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와의 관계연구: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2, 서울: 대한가정학회, 1994.
- 오선주, 「낙태경험 유무별로 본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44, 서울: 대한가정학회, 1996.
- 왕석순, 「아동기 가족의 가정교육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왕석순·서병숙, 「아동기 가족의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수행동와 자녀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 서울: 한국가족관계학회, 1997.
- 유안진,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1984.
- 윤기봉, 「해원상생의 종교학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4 서울: 대순사상학술원, 1998 pp. 371-410.

- 윤이흠·조홍윤·정병조·금장태·주재용·최석우·김정위, 『한국인의 종교』, 서울: 문덕사, 1994
- 윤재근,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4, 서울: 대순사상학술원, 1998, pp. 411-446.
- _____, 「대순사상의 인간형성 이론」,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계학,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재적 조명」,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서울: 한국아동학회, 1995 pp. 5-44.
- 이기영·장윤희,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2.
- 이정덕, 「불교의 가정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정덕·전미경, 「가족 내 종교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5.
- 이정우·김명나,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서울: 대한가정학회, 1990.
- 이정우·정종희,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84.
- 이항령, 「대순사상의 우주사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1, 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1-35.
- 이희자·권영옥, 「학령기 아동과 부모의 통제소재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2.
- 전경련·고정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6.
- 전영복, 「기독교학생의 가정 내에서 종교적 갈등과 신앙생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정수자, 「아동의 인성발달에 대한 비교 연구: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4, 서울: 대한가정학회, 1979.
- _____, 「청소년기 대인행동에 미치는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4, 서울: 대한가정학회, 1981.
- 정용두·류성민, 『종교학 10강』,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정원식·이상로·이성진,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92.
- 정현아·서병숙,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85.
- 차용은·서병숙, 「유료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6.
- 최은경, 「종교인의 가정생활과 가치지향에 관한 연구: 불교, 천주교, 기독교신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4, 서울: 대한가정학회, 1998, pp. 63-77.
- 최재선·허민구·고용권·황관옥·이한수·이제훈,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바울서신사, 1991.
- 최혜경·노치영·박의순,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 최정혜,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보양 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 서울: 대한가정학회, 1998.
- 최홍기, 『가족구조의 변화와 어린이 사회화 국가발전과 어린이』, 서울: 배영사, 1976.
- 현은민, 「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도시와 지방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6.
- _____,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전달 및 가치변화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 Charles Y. Glock, *Religion and Society in Tention*, Chicago: Rand McNally, 1965, pp. 242-259.
- Gardner, H,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Basic Books: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3.
-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e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 Nash, J. M, "Fertile Minds", *Time*, 24, 28-36, Feb, 1997.

원고접수: 2009년 5월 21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김순자

- ① 전공: 교육학, 아동심리 / 소속: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아동교육,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아동복지
 - ③ 주요논저: 『통합교육과정』, 『미래사회와 아동교육』 외
 - ④ E-mail: soonjk@daejin.ac.kr
-

Abstract

Daesoon Thoughts and Child Education

Kim, Soonja

Daejin University

One of the most positive aspects religion can provide us with is that it enables and leads earnest seekers to the path of light and Truth. In other words, it can give us a true understanding of nature, of ourselves, and of other human beings. Thus, a man of well-balanced religious perspectives can find meanings of his or her being present on Earth, thereby being ever ready to confront with confidence and humility whatever comes in his or her way. In this way, a true religion can awaken and unfold in us the knowledge about his or her own Soul and Spirit by which he or she can ennoble his or her mind and identity, which in turn elevates not only his or her own feelings as a member of a family, but also all the members of the family he or she belongs to.

The Religious Order of Daesoonjinrihoe is a unique and creative denomination which has maintaine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9, the consistent stance to adopt, without any prejudice, some of the typical creeds not only from oriental religions 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ut also from western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among others. In the ideology of Daesoon, education is primarily based on the traditional education of Korea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mainly by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instead of having adults and children in different educational situations respectively, adults and children are being educated together in the same educational situation. Second, integrated education for personality and morality is done under the domestic and social environments.

To the people of Daesoonjinrihoe, carrying the truths of Daesoon deep in mind is an ideal state of their faith. Based on the truths growing deep in their mind, they try to purify their mind and body and to get prepared for the delivery of babies. Parents do their roles as they are supposed to do in order to make their family in harmony. In the pedagogy of Daesoon, parents are supposed to play in the family as the role-models for children so that children should model themselves after their parents. In this way, filial

piet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of Daesoon, can be taught to and internalized in the children. Education for better relationship between seniors and juniors is also done on the same pedagogical principle: Children learn and follow what they see from their parents. Education for better relation focuses mainly on cultivating in children such characteristics as concession which will restraint harsh competition and jealousy against other people.

Therefore I want to suggest several things to promote the education Daesoonjinri.

Key words : Religion, Daesoonthoughts, Child Education, Affective behavior, Personality Education, Racial Religion